

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

(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)

I. 정예 농업인력육성 기본 방향

1. 비전과 기본틀

<비전>

▣ 농가의 1/4이상(20만호)이 정예농업인력으로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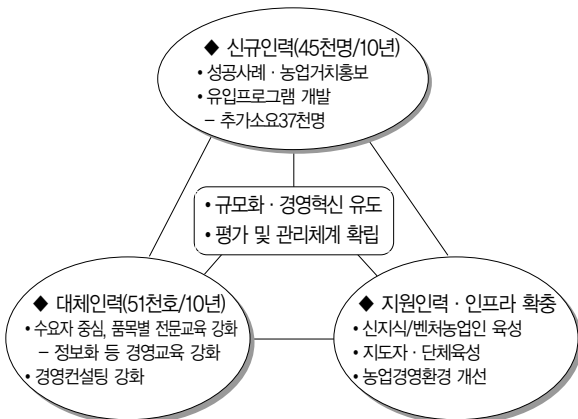
▣ 정예농업인력이 생산의 50% 이상 담당

- ◆ **쌀** : 전업농 7만호 육성 (생산의 50% 담당)
 - 평균 : (경작규모) 6ha, (소득) 53백만원
- ◆ **원예** : 선도농가 11만호 육성 (생산의 50% 담당)
 - 최저 : (경작규모) 과수 1.7ha, 시설 1.5, (소득) 사과 51, 시설 48
- ◆ **축산** : 규모화된 전업농 2만호 육성(생산의 85% 담당)
 - 평균 : (사육두수) 한우 132두, 돼지 2,025 (소득) 한우 154, 돼지 113

농림업 취업인구 3~4%, 원활한 세대교체로 인력구조 안정



<정책틀>



2. 추진 방향

- 1 **젊고 유능한 인력 확보**를 위한 강력한 유인대책 추진(연 45백명)
- 2 **기존농의 교육·경영혁신** 지원으로 자연감소 인력 대체(연 51백명)
- 3 농업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**제도개선 및 환경개선**
- 4 **평가 및 사후관리** 체제 구축으로 우수농가 발굴 및 성공사례 확산

<우수농가 활용>

- ◆ 우수농가를 지속 발굴·홍보 ⇒ 잠재인력에 대한 농업·농촌 비전, 희망 제시 및 신규진입 인력의 현장교육 교관화 ⇒ 우수농가의 Know-how를 확산 ⇒ 성공적인 영농 정착유도

II. 신규인력 육성 방안

1. 잠재인력 후보군에 대한 성공사례 발굴·비전 홍보 강화

가.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활용

- **기존 농업인중** 평가를 거쳐 우수한 선도농업인 발굴
 - 발굴대상 : 농가, 농업법인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경영체
 - 사례유형 : 품목별로 유형화하되, 성공사유별로 세부구분

〈추진 목표〉

- ◆ **농업·농촌의 비전, 성공사례 발굴·홍보, 유입 프로그램** 등을 통해 연평균 **45백명의 신규인력** 영농정착 유도
 - 농과계의 영농정착 : ('03) 1,201명 → ('08) **1,760** → ('13) 3,500
 - 연평균 인원 : 전체 2,100명(농고 720, 전문대 640, 농대 740)
 - 농대 등 농업관련 학교의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
 - 비농업계의 영농정착 : ('03) 885명 → ('08) **2,360** → ('13) 4,300
 - 4대 권역별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 육성(권역별 250명)
 - 귀농운동본부에 귀농정보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귀농 촉진(평균 1,360명)



〈추진 전략〉

- ◆ 정예인력으로 육성할 **잠재인력 후보군 확충**
 - **성공 농업인 연 1천명** 발굴하여 잠재인력에 대한 **홍보 전도사**로 활용
 - 선도농업인의 품목별/품목간 **Network** 구축
 - 잠재인력 **유형별 홍보내용 차별화**로 관심도 제고
 - ◆ 잠재인력의 유입·정착을 위한 **구체적인 프로그램 신설**
 - 유입 : (농과계) 농업인턴제, 창업연수, (비농과계) 직업훈련과정 등
 - 정착 : 창업농 후견인제, 자금지원 체계 개편 등
 - ◆ 후계농의 성장 단계별 **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** 구축
 -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강화
 - 농업인 단체의 참여 강화 및 인적자원관리 측면 강화
- **발굴된 선도농업인은 잠재인력의 벤치마킹 대상**으로 활용
 - **강의 능력이 뛰어난 농업인**을 선정, **교육 강사**('05년 20명 수준)로 활용
 - 선정된 선도농업인은 **품목별/품목간 Network**

구축

- 품목별로 Network을 구성하고, 품목간으로도 기능별 연계체제 구축

나. 잠재인력 유형별 차별화된 홍보 및 지원 추진

- **영농정착이 용이한 잠재인력군**을 대상으로 **집중적 홍보** 추진
- 영농기반이 있는 **후계 농업인 자녀**, 영농과제를 이수한 **4-H 출신자**에 대해서는 **한농전 입학시 가산점 부여**
- **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교육** 내실화
 - 품목생산기술과 경영기법 향상을 위한 **팀별 과제 이수 지원**
- 도시지역보다 불리한 **농촌지역의 여건개선** 대책 지속 추진

2. 신규 유입 프로그램 신설

가. 청소년 유입을 위한 농업인턴제 신설

-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선도농가의 경험을 사전 체험케 하는 등 영농현장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성공가능성 제고
- 인턴대상 : **18~32세의 미취업 청(소)년**
- 연수장소 : 신지식농업인, 전업농, 영농조합법인 등 우수경영체
- '05년 시범사업 : **인턴 100명, 1인당 5백만원** 한도
 - * 농고 재학생 등에 대해서도 인턴대상으로 포함 추진

나.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대학생창업연수 신설

-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농업부문에 우수 신규인력 유입 촉진
- 연수대상 : **32세 미만의 대학 재학생**

- 연수내용 : 이론, 실기 및 현장체험으로 구성
- '05년 시범사업 : **대학생 100명, 1인당 3백만원** 한도

다.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

- 영농희망자에 대한 영농이론·실습·영농설계과정 이수 지원
- 지원대상 : **44세 미만의 신규 영농 정착 희망자**
- 과정개설 : **4개 권역별 6학과 11전공 250명** (총 1,000명)
- * 연차별 계획 : ('06년) 경기권 시범사업(한농전 등) → ('08년) 4개 권역 본사업
- 기타조건 : 교육기간중 **훈련수당(월 50만원)** 지급
- '06년 시범사업 : 3개 전공(전공별 15명)

3.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 지원

가. 자금지원 체계 개편

- **35세 미만의 창업농**을 위한 **차별화된 정책자금 지원**
 - 창업농지원사업의 금리(일본 0~1.6%)는 현행 4%에서 2%로 인하 추진
 - 지원규모도 현행 1억원 한도에서 2억원으로 단계적 상향
- **45세 미만의 기존농업인**은 후계농으로 선발하여 **종합자금으로 지원**
 - 지원대상자격 : (현행) 40세 → (개선) **45세 미만**
- 자금지원 **원활화**를 위한 **후계농업인 보증 지원 체계 개선**
 - 대출업무 관련자 교육 강화 및 조합의 채권보전조치 현황 공개

나. 영농정착을 제고를 위한 후견인제 도입

- 창업농에 대한 후견인의 전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의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정착과

경영혁신 유도

- '05년 시범사업 : '04년도 **창업농** 지원대상자 **100명**

다.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지원체계 마련

- 선정된 후계농업인은 **평가후 지속적인 지원** 및 사후관리를 통해 **선도농가로 육성**

기 초 평 가	
기 관	조사내용 및 업무
지자체	• 영농기반, 교육·훈련이수 • 농업인등록 업무
한농연	• 경영실적, 발전가능성 • 후계자 및 등록농업인 교육
최 종 평 가	
기 관	평가내용
농림부	• 평가결과 Incentive 부여 • 평가결과 반영 정책 개선
KREI 등	• 평가항목 등 평가에 대한 업무총괄 • 시·도별 한농연 기관 평가

- 체계적인 **인적자원 관리**를 위한 **정예농업인 D/B** 구축 활용
 - 현황, 교육 이수 실적 및 자금지원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
 - 인력수급구조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선정 및 조정 등을 추진



III. 기존농업인력의 정예화 방안

〈추진 목표〉

- ◆ **기존농의 교육·경영혁신 지원**으로 연평균 51백명을 정예인력화
 - 정부, 학교, 농업인단체의 기존교육은 환경변화 적응, 정보화 능력 함양 위주로 개편
 - ('05) 55천명 → ('08) 70천명 → ('13) 76천명
 - **경영능력(회계, 정보화 등),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강화**로 매년 정예인력 51백명의 자연감소 인력을 대체
 - ('05) 45백명 → ('08) 57백명 → ('13) 62백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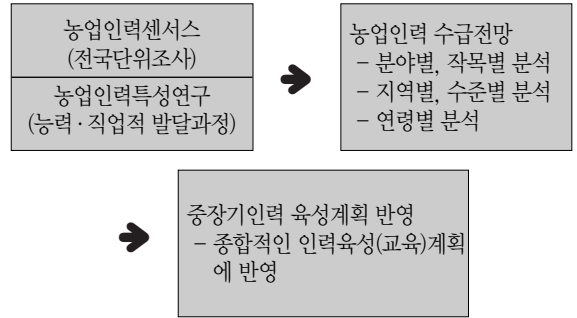
〈추진 전략〉

- ◆ **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훈련 강화**
 - 농업인력센서스 및 농업인력특성연구를 통한 수요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
 - **바우처 제도도입, Cyber 교육** 등을 통한 농업인 맞춤형 교육 강화
- ◆ **품목별 전문교육을 강화, 전업·선도농가 자조능력 배양**
 -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한 품목별 전문교육 강화
 - 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배양 및 자조금 지원
- ◆ **농가경영개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**
 - 민관 역할 분담 기준 정립,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
- ◆ **농업인의 성장단계와 연계한 농업인 등록 및 자격제도 도입**
 - 성장단계별·수준별·교육이수실적에 따라 자격부여 및 지원차등화
- ◆ **여성농업인, 경영체, 전문 지원인력 육성 추진**

1. 기존농의 정예인력화를 위한 수요자중심으로 교육체계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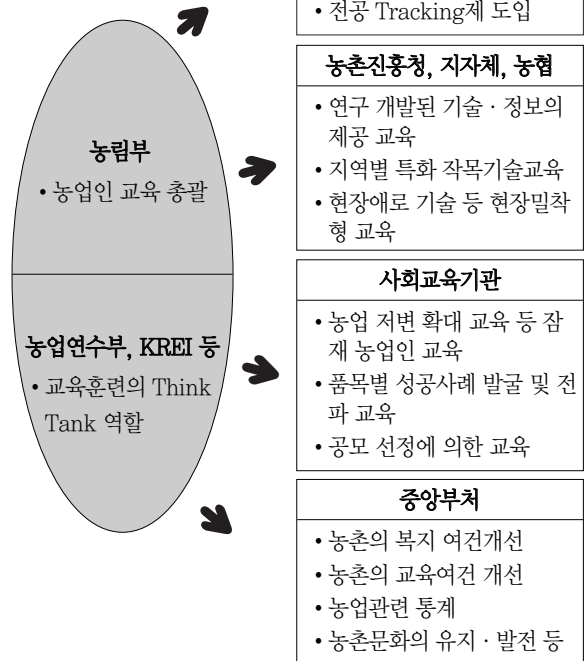
가. 농업인력수급예측을 통한 장기교육훈련계획 수립

- 『농업인력센서스』와 『농업인력 특성연구』를 통한 농업인력구조 및 인력수급예측체계 구축



* 수행주체 : 농촌경제연구원 등

- 인력수급예측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최적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



농고·농대 등 학교 교육기관

- 첨단 농업 기술 교육
- 장기 농업인 교육
- 전공 Tracking제 도입

농촌진흥청, 지자체, 농협

- 연구 개발된 기술·정보의 제공 교육
- 지역별 특화 작목기술교육
- 현장으로 기술 등 현장밀착형 교육

사회교육기관

- 농업 저변 확대 교육 등 잠재 농업인 교육
- 품목별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교육
- 공모 선정에 의한 교육

중앙부처

- 농촌의 복지 여건개선
-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
- 농업관련 통계
- 농촌문화의 유지·발전 등

나. 수요자 위주의 교육훈련 체계 확립

- 교육운영방식은 **현장 밀착형·수준별** 교육으로 전환
-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**스스로 선택**하여 받을 수 있도록 **농업교육훈련 바우처제도** 도입('05년 시범사업 도입)

다.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강화

- 기존 교육과정은 **품목별 전문교육과정**으로 세분화·전문화
- **농업인 단체**에 대한 지원('04년 9억원)은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점진적 전환

2. 농가경영개선,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확대

- **민·관의 농업인 컨설팅 역할 분담**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
-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**컨설팅 지원 확대 및 컨설팅 효과 제고**
 - 민간컨설팅 **국고보조율 확대** : (현행) 국고 30%, 지자체 20, 자부담 50 → (개선) 국고 50%, 지자체 20, 자부담 30
- **전문컨설턴트 양성 등 컨설팅의 질적 향상 도모**
 - 전문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**교육 과정 개설, 교육이수, 자격기준 설정** 등 컨설턴트 자질 향상 유도

3. 농업인의 성장단계와 연계한 지원체계 및 인프라 확충

가. 농업인 등록제 및 자격증제도 도입

- **체계적 지원의 토대 마련**을 위한 **농업인 등록제** 도입
- 농업인 등록자중 **교육이수 실적 및 수준**에 따라 영농수준 및 자격을 인정하는 **농업인자격증제** 도입

나. 정예인력에 대한 지속지원 체계 마련

- 농지 임대 지원 등을 통한 **영농규모 확대** 지원
- 정예인력에 대해서는 **자금 및 품목별 농림사업시우대** 지원

4. 여성농업인 육성 및 관련인력 등의 여건 개선

가.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육성

- 1차적으로 10년간 **여성분야에서 정예인력의 20%**를 선발
 - **원예·특작부문**의 여성 우선 선발 및 후견인 지원 등으로 **젊은 고학력의 여성농업인**을 집중 육성
- 여성의 **지위향상**을 위한 **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**
- 여성농업인의 **영농참여 확대**를 위하여 영농종사와 관련된 **복지서비스 확충** 중점 추진

나. 기업적 경영환경조성을 통한 농업경영체 활성화

- **농업소득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체계** 개선
- **농업회사법인에 외부인력 등의 진입제한 완화**
 -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가능한 **농업인 지분제한** 규정 개선
 - 농업회사법인 **설립 자격조건**에 지자체를 포함
-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**지원제도 정비**
- 농업의 성장동력으로서 **농업벤처 육성**
 - **농업벤처, 신지식인, 대학, 연구소, 지자체** 등의 **인적·물적 네트워크** 구축을 통해 교류 확대, 창업 정보제공 활성화

다. 유통전문인력 등 지도자·선도자 육성

- **전문교육과정 신설**을 통한 유통현장의 전문인력 육성
- 교육분야는 **산지·소비자·품목별 마케팅과 유통업 경영혁신**을 기본으로 하여 **현장수요가 많은 세 분야**를 중점 교육

-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
 - 10년간 5천명의 지도자 육성을 목표(전국 마을수의 1/10수준)로 마을지도자 교육과정 개발
 - 마을내 인적자원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은퇴자, 귀농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(연간 500명 수준)
- 전통식품 명인을 지정하여 전통식품의 계승·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 보호(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)
 - 전통식품산업의 육성 및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자로 활용
- 신지식농업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 등으로 지식농업에 대한 참여 유도
 - 신지식농업인은 지식농업을 주도하는 교육교관 및 리더로 활용

IV. 예산 소요

- 10년간('04~'13년) 총 2조 4천억원(중앙정부 예산) 투·융자
 - * 당초 119조 투·융자계획(1조 5천억원)보다 9,467억

원 증액

- 보조성사업 위주의 잠재인력·관련인력 양성·유입과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강화하고, 융자사업 위주의 정착지원은 현행 비율보다 축소
 - 인력양성·사후관리 : ('03) 2억원 (0.2%) → (연평균) 332(14)
 - 정착지원 : ('03) 960억원 (80%) → (연평균) 1,605(66)

(단위 : 억원, %)

분야별	'03년		'08년		'13년		10년간	
	억원	%	억원	%	억원	%	억원	%
• 잠재인력 양성·유입	-	-	182	6.3	280	7.6	1,517	6.2
• 정착 지원	960	79.9	2,049	71.2	2,485	68.0	16,046	66.1
• 교육 지원	222	18.5	327	11.3	477	13.1	3,545	14.6
• 경영개선 지원	17	1.4	67	2.3	98	2.7	700	2.9
• 사후관리 강화	-	-	69	2.4	105	2.9	666	2.7
• 관련 인력 육성	2	0.2	185	6.4	212	5.8	1,805	7.4
합 계	1,201	100	2,879	100.0	3,657	100.0	24,278	100.0

